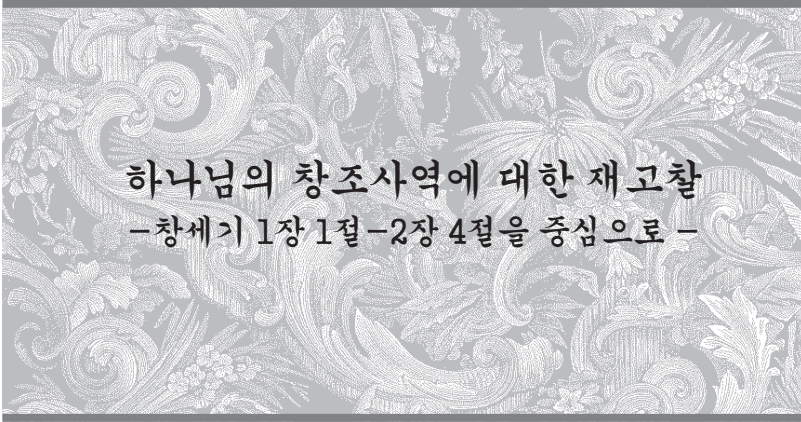


▶ 구약성서 연구와 해석 ◀

- | | |
|------------|---|
| 윤형(장신대) |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 창세기 1장 1절-2장 4절을 중심으로 |
| 하계상(삼육대) | 창세기 2-3장의 히브리어 아룸(אָרוּם), 아룸(אָרוּם), 에룸(אָרוּם): 그 의미들과 번역들, 그리고 그 절묘한 언어유희의 의도 |
| 김도형(서울기독대) | 유다-다말 이야기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제안 |
| 윤동녕(서울장신대) | 민수기 22-24장에 표현된 발람의 역할 연구 |
| 박철우(나사렛대) | 삼단양식적 관점에서 본 전도서 11:1-12:8의 구조와 내용 |



윤형 | 장신대

1.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이며 선입관적인 생각이다. 물론 말씀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말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단선적인 관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우선 본문 가운데 창조관련동사를 중심으로 본문을 언어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과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적인 창조사역을 보다 입체적이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행위기사에 대한 연구사

우선 이 주제에 대한 연구사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동’이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은 주석 가운데 말씀기사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문화와 관련하여 편집사적이며 양식적인 측면에서 창조 작업 기사를 다루고 있다. 우선 창조기사에서 행위기사에 주목한 사람은 베스터만(C. Westermann)이다. 그는 말씀기사와 행위기사를 분리시켜 사건적인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¹⁾ 슈미트(W. H. Schmidt) 또한 창세기 1장에 대한 전승사적인 관점에서 말씀기사와 행위기사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분석한다.²⁾ 페티나토(G. Pettinato)는 고대 근동의 신들의 창조 작업과 인간의 노동을 연결시켜 창조기사를 분석한다.³⁾ 즉 신들이 실제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인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다. 유대전통입장에 선 카수토(U. Cassuto)는 셈어와 관련하여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창조기사에 나오는 행위 동사를 분석하면서 창조 작업을 설명한다.⁴⁾ 벤노 야곱(B. Jacob) 또한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유대적인 관점으로 본문의 의미에 집중하면서 창조기사를 분석한다.⁵⁾ 라이트(G. E. Wright)는 자신의 구약신학에서 하나님의 행동양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그는 내적인 계시를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동과 연결시켰다.⁶⁾ 폰 라드(G. von

1) C. Westermann, BK I/1 Genesi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178, 214. 그는 구약성서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야기’로 보아 구약성서신학의 구조가 개념보다는 사건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동사의 구조가 명사의 구조를 지배해야 한다고 말한다.

2)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4), 73–159.

3)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mthen* (Heidelberg: Carl Winter, 1971).

4)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1).

5) B. Jaco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rlwer, 2000).

6)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벤 C. 올렌버거, 엘머 A. 마르텐스, G. F. 하젤 엮음,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134–164. 원저는 Ben C. Ollenburger, Elmer A. Martens, Gerhard F. Hasel, *The Flower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Winona Lake: Eisenbraun, 1992).



Rad)는 창조기사를 제사장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오랜 기간에 걸친 전승사적 이야기 및 신화적인 반영의 산물로 이해한다.⁷⁾ 궁켈은 창세기를 전설 및 신화의 모음집으로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노동을 서술하기 보다는 창조기사에 대해 종교사적으로 접근한다.⁸⁾ 침멀리(W. Zimmerli)는 창조기사에 대해 신학적으로 접근하지만 주로 문서설과 양식비평적인 관점에서 세상 및 인간창조에 대하여 기술하기 때문에⁹⁾ 하나님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에바흐(J. Eibach)는 문화발전과 관련하여 성경과 인간의 노동문제를 연결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¹⁰⁾ 그것을 하나님의 노동까지 확장시키지는 못했다. 최근에 윤형은 그의 논문에서 하나님의 노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권 개념을 중심으로 원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¹¹⁾ 이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창조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창조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존재론적이며 종교사적이며 문학적인 관점에서 관찰했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고찰

우선 동적인 창조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문에 명확히 나타난 칠일을 기준으로 해서 단락을 나눈 다음 그 가운데 창조 행위관련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1) 창조의 시작

7)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42-45.

8) H. Gunkel,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4).

9) 발터 침멀리, 「구약신학」(김정준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원저는 Walter Zimmerli, *Grundriss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Stuttgart: Kohlhammer, 1969).

10) J. Eibach, *Menschen mit, nicht durch Arbeit*, in: *ThPQ*(2004), 275-283.

11) 윤형, "성경의 원역사에 나타난 노동과 주권(창 1-11장)," *구약논단* 41집(2012년 9월), 136-157.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 1:1) 이 주문장은¹²⁾ 곧 바로 처음부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표현하는데, 왜냐 하면 모든 것이 그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시작하였으며 이 시작과 함께 시간이 설정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은 시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처음이라는 의미는 אָרָב(바라/창조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도 강조된다. ‘만들다 또는 짓다’라는 다른 동사들과 비교할 때 그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에만 귀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수작업과 같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텔리취(F. Delitzsch)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가 모든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¹³⁾ 따라서 אָרָב 동사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행위를 표현한다. 이 문장에서 אָרָב 동사는 문법적으로 흔히 행위를 나타내는 완료동사군(a-완료형, u-미완료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창조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생겨났다. 그러나 재료 및 생성과정에 대한 묘사는 보이지 않고 단지 지음 받은 피조물만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물들을 창조했단 말인가? 이에 단티네(Dantinne)는 추측하기를 그 동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¹⁴⁾ 곧 이어 나오는 히브리 동사 נָבַד(바달/나누다)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창 1:4,6,7,9,14,18). 구약 이외의 고대 셈어군에서 אָרָב의 어근은 지금까지 증명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어근은 아마도 악카드 및 우가릿 본문에서 ‘짓다’라는 의미

12) 이 문장을 주문장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부문장으로 보아야 할 지 논쟁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C. Westermann, BK I/1 Genesis, 131ff.를 참조하라.

13) 다음 책에서 재인용함: C. Westermann, BK I/1 Genesis, 136.

14)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165.





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¹⁵⁾ 이 개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마치 한 건축가처럼 하늘과 땅을 지었다. 바라동사는 창조행위(창 1:1,21,27; 2:3,4; 5:1,2)에만 나타나고 창조의 유지 혹은 역사 가운데 그 밖의 다른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¹⁶⁾ 이 문맥에서 그 동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타동사적 의도를 취하자 마치 주술(magic)처럼 한 물체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אָבַד 동사는 어떤 행위와 관계가 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아주 새로운 무엇인가가 생겨난다.¹⁷⁾ 하나님이 일할 때, 그는 자신의 일을 통해 어떤 새로운 것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이 창조행위에 대해 어떤 유출과 비슷한 생각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인 작업과정이 설명된다. 이렇게 볼 때 אָבַד 동사는 후에 나타나는 창조관련동사 אָשַׁר(아사/만들다)와 אָצַר(아차르/짓다)에 비해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일에 관계된 불가해한 동사 형태로서 편찬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노동의 특이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런 비교 불가능한 낱말을 사용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거의 모든 다른 우주기원론에서 세상은 신의 개입 없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었던 원재료로부터 파생되고 형성된다. 그러면 창조이야기에서 원재료가 전혀 없는가? אָבַד 동사의 목적어는 하늘과 땅이다. 그것들을 창조의 원재료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¹⁸⁾ 그렇다면 그것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마카베오 하 7:28).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단지 황량한 땅위에 질서를 창조한 '정돈자(Ordner)'에 불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계속적으로 수행해야할 창조 작업을 위한 재료,

15) J. Bergman, Art: אָבַד, ThWAT Band I (Stuttgart: Kohlhammer, 1973), 773.

16)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184.

17) B. Jaco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rlwer, 2000), 20.

18) C. Westermann, BK I/1 *Genesis*, 151f.: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선 재료를 창조하며, 2절은 그런 혼돈적인 상태를 설명해준다. 말하자면 그것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재료이다. 이런 생각은 어거스틴(Augustin)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그것은 서양 신학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것들은 재료인 동시에 계속 진행될 작업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구체적인 대상들을 배치한다. 그래서 미드라쉬(Midrash)에서 한 건축가의 작업을 통해 자신의 왕궁을 짓는 왕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¹⁹⁾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자라면 첫째 문장은 하늘과 땅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통해서야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베스터만(C. Westerman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창조 이전에 주어진 상태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 그 절의 의미가 아니고 창조라는 행위에 ‘사건’이라는 특징을 부여하는데 있다는 것이다.²⁰⁾ 이제 수면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루아흐/바람²¹⁾)이 창조에 참여한다. מְרַחֵם(트라헤페트/날다)라는 분사형은 수면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을 묘사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의 동작을 표현한다.

2) 첫째 날의 행위 사역(창 1:3-5)

첫 번째 창조기사에서는 히브리 동사 אָרַךְ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אָרַךְ 처럼 동일한 창조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빛은 신적인 말씀에 의하여 생겨났다. 그 밖에 도입적인 와우 연속 미완료형태로 그 말은 계속 육일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다(창 1:3,6,9,11,14,20,24,26).²²⁾ 여기서 질문은, ‘말을 통한 일(Arbeit des Wortes)’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 그것이 생겼으며, 그가 명령하시자 - 그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시 33:9; 33:6;

19) The Midrasch Rabbah, Genesis / (Tübingen: Mohr Siebeck, 1999), 1.

20) C. Westermann, BK I/1 Genesis, 141.

21) J. Ebach, *Weltent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Stuttgart: Kohlhammer, 1979), 36: 이집트에서 바람에 의한 창조행위에 대한 고대 증거자료가 있다.

22) N. M. Sarna, *The JPS Torah Commentary, Genesis* (Philadelphia: JPS, 1969), 5: "God said" means "God thought" or "God willed".



107:25; 148:5). 이것은 마치 주술처럼 들린다. 과연 그 말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새로운 것을 생성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가? 3절에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타나는데, 즉 매개체이다. 에스드라 4서 6장 38절을 보면 세상과 개별적인 작품들의 창조가 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당신의 말씀이 그 작품을 창조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43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그러자 당신의 말이 나왔으며, 그때 이미 작품이 거기 있었다.”²³⁾ 이에 대해 마틴 루터(M. Luth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이 나오자마자, 빛이 생겼다. 하지만 그것은 말이라는 재료도 아니고 또 여기서 말하는 말의 본래적 속성에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심중으로 말하자 동시에 밖으로 빛이 생기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⁴⁾ 또한 본회퍼(Bonhoeffer)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 말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한 작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²⁵⁾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곧 바로 그 서술형이 된다. 그 말씀 안에 어떤 특정한 실체가 있다. 실제로 예언적인 소식은 신적인 말씀의 효력을 확증한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11).”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일한다. 그러므로 **וַיִּאמֶר**(바요메르/이르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노동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로 인한 결과가 실제로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인 ‘단어 및 낱말’은 실제로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말’속에는 창조적이며, 영향을 미치면서 명령의 의미를 가진 노동(일)의 개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의한 창조가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우주창조론에서도 말씀에 의한 창조가 있다. 즉 마르둑

23) G. Bertram, Art: ἔργον, ThWNT Bd. II (Stuttgart: Kohlhammer, 1954), 634.

24) 다음 책에서 재인용함: C. Link, *Schöpfung* (Gütersloh: Gütersloher, 1991), 42.

25) D. Bonhoeffer, *Schöpfung und Fall* (München: Kaiser, 1989), 39.

(Marduk)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집트인들은 세계창조에서 토트(Thot) 신의 도구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카르낙(Karnak)의 촌주-필론(Chonsu-Pylon)과 에드푸(Edfu)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토트 신에게 찬양이 올려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따라 사물이 생기며, 그가 말한 대로 됩니다.”²⁶⁾

이와 같은 창조과정에서 히브리어 동사 **נָחַד**(바달/나누다)은 하나님의 중요한 행위를 설명 한다(창 1:4,6,7,14,18). 이 작업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작업을 계속 진행시킬 수 없는데, 따라서 그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 **נָתַן**(바라)와 관계가 있다. 이런 창조적인 분할을 통하여 세상은 이전보다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 이제 하나님은 그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명명한다. 작명 또한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이를 통해 피조물에 적합한 목적이 생기기 때문이다(창 1:5,8,10). 하지만 그 작명은 첫 삼일간의 창조에만 국한된다. 게다가 쉬미트는 ‘이름을 준다’는 것 역시 ‘창조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시 147:4; 사 40:26; 41:4; 48:13; 암 5:8; 9:6).²⁷⁾ 이런 점에서 이름을 주는 행위(창 1:5a,8a,10a)는 주권과 창조행위의 선언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작명은 역동적인 창조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둘째 날의 행위 사역(창 1:6-8)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의 창조에 나선다. 이에 그는 다시 말하는데, 이번에도 ‘나누다’라는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날에 빛이 2절의 어둠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궁창의 창조 역시 2절의 **תְּהוֹמִים**(트흠/흑암)과 관계가 있다. 궁창의 기능은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

26)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175.

27) 윗글, 67.



은 질문이 생기는데, 즉 궁창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창을 만드는 일이 7절에서 왜 다시 언급되고 있는가이다. 동일한 경우가 14절 이하, 20절 이하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수작업 노동이 이어진다. 그것은 본문의 다양한 출처의 결과인가?²⁸⁾ 하지만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단지 자신의 말을 통해서 창조하였다.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진 것인가? 왜 여기서 이중적인 말씀담화가 나오는가? 이에 대해 슈미트는 추측하기를 첫째 날의 나누는 행위는 이미 주어진 재료를 전제하는 것이고, 한편 6절에서는 새로운 어떤 것이 추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구절들을 보면(창 1:7,16,21,25,26f.) 창조를 위한 재료가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완전히 새로운 것이 기존의 창조물에 추가된다.²⁹⁾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형식은 첫째 날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점을 숙고해야 하는데, 즉 6절과 7절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6절은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며, 7절에서 그는 실제적인 궁창을 만든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말씀기사와 행위기사가 결합된 것이다. 또한 둘째 날의 창조부터 수작업을 가리키는 동사들이 말씀기사와 함께 사용되는 점이 눈에 띈다. 단지 첫째 날의 빛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다. 이에 반해 그 밖의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다. 이렇게 그의 실제적인 행위가 강조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신화적인 창조개념들은 거부된다. 이제 7절에 처음 나타나는 $\pi\psi\psi$ (아사)라는 히브리 동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그 동사는 행위를 통해 사물을 생산하든지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7절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났다. 거기서 $\pi\psi\psi$ 동

28) O. H. Steck, *Der Schöpfungsbbericht der Priesterschrif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73: 여기에 창조사역에 대한 두 가지 판본이 있다고 주장하는 베스터만과 슈미트와는 반대로 스텝은 두 절이 계획적이며 단일한 형태로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29)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103: 해당구절들을 보면 언제나 일정한 형태가 발견된다(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는 בָּרָא 동사와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기 위하여 직접 궁창을 만들었다. 하지만 궁창의 창조를 위한 재료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הָפַץ 동사는 신적이며 인간적인 제조행위를 표현한다. 제조자로서 하나님은 궁창을 만들었다. 그의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추상적인 개념대신에 הָפַץ 라는 구체적인 행위동사가 사용되었다.

4) 셋째 날의 행위 사역(창 1:9-13)

이제 하나님은 물(9절)과 땅(11절)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실제로 셋째 날의 창조는 물의 생성(10절)과 땅의 창조적인 생산(12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날에는 땅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창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 히브리 동사들(הָפַץ , בָּרָא , אָשַׁר)이 사용되는데(창 1:11f.), 거기서 문장의 주어는 바로 땅이다. 실제로 땅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동참한다. 그래서 ‘자연’이란 개념(natura naturans), 즉 독립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자연의 개념이 파생된다.³⁰⁾ 11절에서 히브리 동사 אָשַׁר (타드쉐)가 눈에 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다: “땅이 푸른 싹을 내다.” 여기서 다시 히브리 동사 הָפַץ 가 나온다. 그것은 과일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동사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생산함’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땅은 독립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중요한 전제, 즉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제야 땅은 푸른 싹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같은 땅’이라는 신화적인 표상은 완전히 기각되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수정된다. 왜냐하면 그 땅에게 고유한 능력이 수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6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말씀기사와 땅의 행위기사가 11절 이하에서도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피조물의 생성을 위한 능력

30) G. von Rad, *Gottes Wirken i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4), 113; 하지만 그 자주성은 제한되는데, 왜냐하면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명령이 있고나서야 땅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위임하는데, 왜냐하면 그 창조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비로소 땅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원래 땅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속해있었는데(시 104:14), 하지만 이제 땅은 스스로 자신의 노동으로 다양한 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 생산적인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히브리어 동사 **נָצַח**(토체)가 사용되고 있다. 거기서 주목되는 점은 11절에 히브리 동사 **נָשָׂא**(드샤)가 땅의 창조적인 작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한편 12절에서는 그 동사가 **נָצַח**(야차/나가다)에 의해 대체된다. 왜 어감(뉘앙스)이 차이나는 그 동사(**נָשָׂא**)가 사용되는 것일까? **נָשָׂא**(테쉐/새씩)라는 명사는 발아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인 번성함의 상징이 된다(신 32:2; 삼하 23:4; 욥 6:5; 시 23:2; 잠 27:25). 11절에서는 ‘푸른 싹을 냄’의 의미가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의 사용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런 다음 12절에서는 실제로 어떤 것을 생산하는 동사인 **נָצַח**(야차)를 통해 땅의 창조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새싹이 어느 정도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다. 이렇게 행위 동사를 통해 대리적인 땅의 생산적인 활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5) 넷째 날의 행위 사역(창 1:14-19)

넷째 날의 창조과정은 다른 날보다 약간 길고 다르게 묘사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그 과정은 둘째 날과 셋째 날과 유사하다. 즉 말씀기사(1:14-15)에 이어 행위기사(1:16-18)가 뒤따른다. 넷째 날의 창조는 첫째와 둘째 날의 창조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즉 어떻게 빛(4절)과 광명체들(18절)이 서로 관계되는가? 우선 첫째 날의 빛(**אוֹר**/오르)은 기능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빛 그 자체이다. 그러나 광명체(**מְאֹרֹת**/므오르트)는 어떤 목적이 정해진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물들이다. 그 밖에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에 대해 광명체들은 하나님의 작업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 목적과 특징이 다르다. 이에 카수토(U. Cassuto)는 ‘나누다’라는



개념으로 빛과 광명체를 구분한다.³¹⁾ 어떤 것을 나누다는 것은 그 분할 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해와 달’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낮과 밤이 있었다(창 1:3-5). 따라서 넷째 날의 창조는 구체적인 시간질서(창 1:14b)와 관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편 136편 7-9 절을 이에 대한 하나의 주해로서 이해할 수 있다: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은 밤을 주관한다. 이와 관련하여 폰라드는 천체들은(Gestirne) 실제로 빛을 생산하지 못하며,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빛을 단지 중간에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³²⁾ 이 광명체의 기능은 여러 가지다: 나누다, 표시하다, 밝히다, 주관하다. 땅처럼 광명체들도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부정사와 함께 쓰여 목적을 표현하는 히브리 전치사 **ל**(르)가 다른 모든 사물들 중에서 그 기능과 관련하여 천체들에게만 11번씩이나 사용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말씀(계획, 의도) 이후에 두 광명체가 만들어져서 하늘에 놓여진다(17절, **וַיִּבְרָא**/나탄/놓다). 또 눈에 띄는 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이름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변세계에서는 해와 달이 신으로 경배되며 실제로 해를 표현하는 셈어는 공통적으로 신적인 이름을 갖고 있다.³³⁾ 여기서 광명체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다음에 과제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그들의 신적지위는 엄격하게 배제된다. 이 단락에서는 히브리 동사 **וַיִּבְרָא**, **וַיִּשָׂא**(마쌀/다스리다), **וַיַּעֲשֶׂה**, **וַיַּבְרֵ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동사들이 하나님의 노동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만들다, 놓다’라는 동사들은 신적인 행위에서 수작업의 측면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31)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1), 43f.

32)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 35.

33) H. Gunkel,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4), 109: 이집트인들은 해신을 ‘살아있는 등잔’으로 부른다.



6) 다섯째 날의 행위 사역(창 1:20-23)

다섯째 날에는 물의 짐승과 새들이 창조되는데, 여기서도 말씀기사(20절)에 이어 나오는 행위기사(21절)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 처음으로 축복한다는 점인데(22절), 그것은 생물의 번성함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속은 바로 그 축복 덕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식일의 축복이 보여주듯이 생명체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חַיָּוָי/네페쉬 하야)의 창조가 시작된다(창 1:20,21,24,30). 11절에서 하나님은 땅에 푸른 싹을 내도록 명령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을 내려 생물로 번성케 하고,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도록 명령한다. 특히 동사의 유음중첩법(paronomasie)은 그 의미를 강화시킨다. 11절에서 땅은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창조적인 역할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 반하여 물은 스스로 그 어떤 물의 짐승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이다(21절). 하나님은 단지 물에 생명체들이 번성하도록 명령할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물의 짐승들과 새들의 창조가 일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창조와 관련하여 11-12절과 16절과는 다른 동사가 사용되는데, 바로 히브리 동사 바라(בָּרָא)이다. 왜 בָּרָא 대신에 그 동사가 선택되었을까? 이 단락에서 이것은 불가피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물에 상관없이 아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בָּרָא(바라)동사에 있어서는 생산과정에 투입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물의 짐승들과 새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창 1:24-25)은 풀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점이 본 동사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와 비교해 볼 때 그 동사 역시 피조물과 창조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³⁴⁾ 바라동사에 있어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

34)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 36. 왜냐하면 그의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창조되기 때문인데, 전체적으



님만이 자신의 창조사역을 위해 그 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 그 낱말의 사용을 통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적 표상에 대한 비판적인 비신화화가 숨어있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물 역시 - 다른 곳에서는 독립적인 창조적 능력을 갖고 있음 - 그렇게 해서 격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 처음으로 ‘축복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בָּרַךְ (바라크)가 나타나는데, 이제부터 이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창 1:22,28; 2:3; 5:2; 9:1). 왜냐하면 그것이 피조물들의 존속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7) 여섯째 날의 행위 사역(창 1:24-31)

이제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창조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국면에 이르렀다. 26절에서 보듯이 그의 계획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전 작업을 포괄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업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24,26,28,29절). 이 단락에 와서야 전체적인 창조과정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이로써 창조 작업은 완성 단계에 이르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위임한 세상에 대한 인간의 주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된다. 사람은 땅위에 선 하나님의 권능의 대리인으로서 그 질서를 보증해야 한다. 말씀기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24절은 11절과 서로 상응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25절의 주어는 12절의 주어와는 다르다. 12절에서는 땅이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비해 25절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20-21절의 형식은 24-25절의 형식과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명령의 수령자가 창조의 주체와 다르

로 하나님의 일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말씀 - 명령 - 만들 - 평가의 순이다.

35) 하경택,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30집 (2008년 12월), 132.



다. 하나님 자신이 물의 짐승들을 창조(אֶרֶב)하였으며 땅의 짐승들을 만들었다(הָפַץ). 이것은 무엇보다 생명체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사역임을 분명히 가리킨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남자와 여자의 사람창조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강한 의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목적지향적인 행위를 잘 인식할 수 있다. 이로써 인간의 존재목적이 정해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위가 규정된다. 사람의 일은 바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인데, 즉 그는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유지하며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로부터 사람의 모든 일이 파생되며, 3일 째의 땅과 같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다. 그러나 양자사이에 주종관계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 창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고대 동방의 본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일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신들을 그들의 어려운 노동으로부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³⁶⁾ 고대 악카드인들과 수메르인들은 공히 노동을 인간의 창조목적으로 본다. 아트라하시스 신화(Atrachasis-Mythos)의 첫째 판은 세 단계로 나누어 자세하게 인간의 창조과정을 묘사하는데,³⁷⁾ 여기서 신들의 강제노역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창조로 이어진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노동은 인간창조의 주된 목적이 아니며 그것은 전혀 강제노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에누마엘리쉬 서사시(Enuma-eliš Epos)를 보면 인간은 단지 하나의 물건일 따름으로서 신들의 부속품이다.³⁸⁾ 여기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주종관계가 분명히 나타난다. 수메르와 악카드 창조문헌들에 따르면 인간의 지위는 그 노동

36)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mthen* (Heidelberg: Winter, 1971), 21f.

37) 윗글, 27.

38) 윗글, 71.



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렇게 고대근동문헌과 성경은 신이 움직이며 노동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의도가 상이하다.

이제 26절과 27절에 각각 사용된 동사는 다른데, 하나는 עָשָׂה고 다른 하나는 אָבַר이다. 이중 אָבַר동사는 27절에서 세 번씩이나 사용된다. עָשָׂה동사는 수작업행위를 통해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אָבַר동사는 무엇인가 아주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해낸다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 실제로 사람의 모습은 다른 피조물들의 형태와는 아주 다르다.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צֶלֶם/첼렘)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전혀 새로운 특별한 피조물인데, 따라서 이 동사가 사용되어야만 했다. 26절에서 사람을 ‘만드는 것’ 그리고 27절에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각각 사용되었다. 특히 창조와 관련해서는 세 번에 걸쳐 אָבַר동사가 사용되고 있다(창 1:27). 이후 낙원이야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다시 한 번 새로운 히브리 동사 יָצַר(야차르/짓다)가 사용된다(창 2:7).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사람의 창조를 위하여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된 셈인데, 그 동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문맥에 따라 각각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28절에서 인간은 축복을 받으며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지는데, 즉 땅, 물의 짐승들, 땅위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라는 지시이다: *Dominium Terrae*(도미니움 테라이).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시하는 노동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그들은 짐승들을 복종시키고(רָדָה) 땅을 정복(כָּבַשׁ)해야 한다. 이 명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두 동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 우선 כָּבַשׁ(카바쉬)동사는 삶의 공간의 점령 또는 노예행위와 관계가 있다. 이에 뤼터스워드(U. Rütterswörde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듯이 두 동사의 순서는 논리적이며 일관성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삶의 공간의 정복이며 그 다음에는 생물





의 지배이다.”³⁹⁾ רָדָה(라다)동사는 구약에서 지배와 관련된 대표적인 동사이다: “라다는 노동과 부역을 독려하는 폭력이 포함된 명령인데, 그것은 때로 벌주기도 하고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⁴⁰⁾ 그 어원은 발동작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폭력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낱말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발견한 코흐(K. Koch)는 에스겔 34장 4절과 시편 49편 15절에 따라 ‘무엇인가를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낱말의 선택에 있어 창세기 1장은 자신의 동물들을 끌고 풀을 뜯기고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표현과 잘 어울린다.”⁴¹⁾ 그래서 두 동사의 적절한 번역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는데, 이는 최근에 자연에 대한 폭력이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동사 רָדָה(카바쉬, 지금까지 <복종시키다>라는 의미로 번역됨) 또한 다음과 같은 의미도 갖고 있는데, 즉 다른 성경책들(민 32장과 수 18장)의 번역을 비교해 볼 때, ‘경작지를 차지하다 또는 봉사할 수 있게 하다/개간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동사 ‘radah’(지금까지 ‘왕과 같이 또는 권위적으로 나타나다’로 번역됨)는 마리문서에서 목자가 자신의 작은 가축 떼를 돌보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또 책임감 있고 배려 깊은 행위를 함축하고 있다.⁴²⁾ 이와 관련하여 이 동사에 대한 에스겔 34장 4절과 창세기 1장에서의 비교에 대한 다음 소견은 귀를 기울일 만하다: “첫눈에 주목할 만하게 보이는 것은 에스겔 34장 4절에서 목자와 가축사이의 좋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는 이 동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따르면 인간의 과제를 동물세계에 대한 올바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⁴³⁾ 두 가지 경우 그 결과는 아주 판이하다! 즉 목자와 그에게 맡겨진 가축 떼에 대한 관계(에스겔서 배후에는 왕과 백성사이의

39) U. Rütterswörden, *Dominium Terrae* (Berlin: de Gruyter, 1993), 103.

40) B. Jacob, *Das Buch Genesis*, 59.

41) K. Koch, *Spuren des hebräischen Denken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233.

42) S. Matthias, Art.; *Dominium Terrae*, in; Wikipedia, 2008.

43) J. Ebach, *Welten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282, Anm. 5.



관계가 놓여있음)에서 중요한 것은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려 깊은 관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동적인 다스림(카바쉬/라다)의 원칙이기도 하다.

육일동안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실제로 끝이 났음을 알 수 있다. 성경외적인 창조기사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창세기에서는 세계창조가 수작업을 나타내는 동시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지향적인 행동이지 신들 사이의 난상토론의 산물이 아니다. 생활공간과 그 안에 생명체가 조합된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연상케 한다. 창조과정은 마치 한 가옥을 짓는 일과 같아 보인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작업자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에 임하는데, 그래서 노동이라는 개념은 그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고대 희랍의 자연철학은 어떤 중립적이고 학술적인 관심에서 세계발생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세상을 최종적이고 추상적이며 통일적인 원리로부터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대적과의 충돌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 진행한다. 이에 반해 다른 민족들의 많은 신화들의 창조과정은 신화적으로 의인화된 적대세력과의 싸움으로 묘사되며, 거기서는 밝고 선한 존재가 어둡고 악한 존재를 이기는 것으로 되어있다.⁴⁴⁾ 이집트인의 표상에 따르면 신들은 우주론과 관련하여 의인화되어있는데, 그들은 제각기 창조요소들을 구현하고 있다.⁴⁵⁾ 게다가 에누마 엘리쉬(Enuma-eliš Epos)에 따르면 하늘은 승리자인 마르둑에 의해 티아맛(Tiamat)의 상반신으로 만들어진다. 심지어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우주와 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전제한다. 메소포타미아 표상에 따르면 신들은 일반적으로 우주와 그의 경외스런 심연의 상징으로서 이해된다.⁴⁶⁾ 수많은 종교이론들은 창조를 ‘유

44) G. von Rad, *Gottes Wirken i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4), 111.

45)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26.

46) N. Lohfink, *Unsere großen Wörter* (Freiburg: Herder, 1979), 200.

출(Emanation)’로도 이해하는데, 즉 신적존재의 방사로써, 그를 통해 창조가 거의 불가피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세계의 창조설화는 신비주의에 가려져있는데, 이에 반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유가운데 자신이 직접 움직여 세상과 피조물을 창조하는데, 이런 점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노동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8) 창조사역 이후의 안식일(창 2:1-3)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창 2:1). 이 문장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의 종결을 가리킨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수동태 동사형(בָּרָא) 바예쿨루(끝나다)으로 하늘과 땅과 생명체의 피조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능동태(בָּרָא) 바예칼의 주어로서 창조 주체자인 하나님의 행위가 종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에게 의존되어있다: 즉 “세계와 자연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 이외에 어떤 작업자를 갖고 있다.”⁴⁷⁾ 이제 우리는 다시 노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독특한 표현이 나타난다: מְלָכָה(믈라카/일). 2절과 3절에서 그것은 세 번 반복된다. 3절에서 그것은 אָרְבָּ, אֶשֶׁף와 함께 쓰인다. 원역사에서 그 명사는 창세기 2장 3.4절에서만 나온다. 이 문맥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의 마감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노동을 의미한다. 이 명사의 어근(우가렛어)은 לָכַח(라아크)인데, ‘보내다’를 의미한다.⁴⁸⁾ 하나님이 한 물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손 혹은 말씀을 보낸다(시 8:3; 107:20).⁴⁹⁾ 하나님에게 ‘말’과 ‘손’은 피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신인동형론을 연상케 한다. 어쨌든 그 명사는

47) U. Dierse, Art: *Gott*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III J. Ritter(Hg.) (Basel: Schwabe, 1974), 777.

48) J. Milgrom, Art: מְלָכָה, *ThWAT* Bd. IV (Stuttgart: Kohlhammer, 1984), 905.

49) 이 용호, “시 8편에 나타난 인간: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구약논단 33집 (2009년 9월), 20.



수작업행위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창조의 전 과정을 노동을 통해 실현된(참조, 출 35:35; 36:1.4,6) 하나의 결과물(εργον)로 볼 수 있다. 이에 유대인 성경인 타낙(TANAKH)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하나님께서 행했던(עָשָׂה) 모든 창조(בְּרָא) 작업(מְלָאכָה). 그러므로 그 단어는 그 안에 두 동사(עָשָׂה, בְּרָא)의 개념을 포함한다: “בְּרָא는 창세기 1장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지니고 있으며, עָשָׂה는 안식일 전문용어에 속한다.”⁵⁰⁾ 편찬자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사역을 표현하기 위해 그 단어를 채택했다. 그것은 한 관계문장 안에서 בְּרָא, עָשָׂה와 함께 연결되어있다(창 2:3). 여기서 עָשָׂה동사의 부정사형이 나타난다. 세 단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부정사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야콥(B. Jacob)은 그 문장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낸 그것.⁵¹⁾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로부터 안식을 취한다.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의 행동은 주간단위의 리듬 속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농부의 노동과 유사하게 묘사된다. 그밖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축복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여기서 שַׁבָּת(사바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쉬다’가 아니라 ‘그만 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일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미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 ‘안식일(Sabbath)’이라는 개념은 발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날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 날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의 모델이 된다(출 20:11; 31:17).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변세계, 즉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또는 겐족에게서 그것의 근원과 관련된 예를 찾아보면 그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⁵²⁾ 안식일에 대한 성경전통의 독특함은 다른 평행본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노동

50)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156 Anm. 5.

51) B. Jacob, *Das Buch Genesis*, 66.

52) R. De Vaux O. P.,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Heer und Kriegswesen, Die Religiösen Lebensordnungen* (Freiburg: Herder, 1960), 335.



과 안식이 신들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신들은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존재들이고 인간들은 이에 반하여 노동을 해야 한다. 인간들에게는 불가피한 강제노동이 어깨에 지워진다. 이는 신들로 하여금 안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이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은 노동을 마치고 난 후 인간적인 안식의 전형이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했는데, 이것은 이미 단어선택에서 나타나는데(창 2:3), 왜냐하면 카다쉬(קַדְשֵׁךְ)는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일상적인 영향권으로부터 일상적이며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을 말한다. 로핑크는 안식일과 하나님과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예배의식과 공동기도와 찬송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궁극적이며 잊지 못할 의미를 줄 수 있는 한 점에서 하나님과 관련된다.”⁵³⁾ 하나님과의 연결 없이는 영원히 계속되는 날들은 단지 반복되는 운동에 불과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개념에서 일하는 날과 안식일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창조 행위 작업 마지막에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암시한다.

5. 나가는말

우리는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란 질문을 제기하고 그런 단선적인 관점을 교정하고자 창조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언어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 본문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세상 창조 시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수작업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여러 피조물들을 창조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본문은 말씀기사와 행위기사가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히브리어 타동사는 하나님

53) N. Lohfink, *Unsere großen Wörter*, 197.

의 노동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입증해준다. 더 나아가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을 때 쓰인 **קָרָא**(하야/있다)동사도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동작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창조사역이 하나님의 노동으로 이루어졌음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노동행위를 마쳤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그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알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단선적인 창조관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6. 참고문헌

- 이용호, “시편 8편에 나타난 인간이해,” 「구약논단」 33집(2009년 9월), 10-28.
- 윤형, “성경의 원역사에 나타난 노동과 주권(창 1-11장),” 「구약논단」 41집(2012년 9월), 136-157.
- 하 경택,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의,” 「구약논단」 30집(2008년 12월), 126-146.
- 벤 C. 올렌버거, 엘머 A. 마르텐스, G. F. 하젤 엮음, 「구약신학의 주요 인물들」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원제 Ben C. Ollenburger, Elmer A. Martens, Gerhard F. Hasel, *The Flower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Winona Lake: Eisenbraun, 1992).
- 발터 칩멀리, 「구약신학」 김정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원제 Zimmerli, Walter, *Grundriss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Stuttgart: Kohlhammer, 1989).
- Bergman, J., Art: **קָרָא**, ThWAT Band I (Stuttgart: Kohlhammer, 1973).
- Bonhoeffer, D., *Schöpfung und Fall* (München: Kaiser, 1989).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Jerusalem: The

- Magnes Press, 1961).
- Dierse, U., Art.: *Gott*,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III J. Ritter(Hg.) (Basel: Schwabe, 1974)
- Ebach, J. *Menschen mit, nicht durch Arbeit*. in: ThPQ152(2004), 275-283.
 ———. *Weltent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bei Philo von Byblos*. (Stuttgart: Kohlhammer, 1979).
- Gunkel, H.,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1977⁹).
- Jacob, Benno,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 Koch, K., *Spuren des hebräischen Denken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 Link, C., *Schöpfung* (Götersloh: Gtersloher, 1991).
- Lohfink, Norbert, *Unseres großen Wörter* (Freiburg: Herder, 1985).
- Matthias, S., Art.; *Dominium Terrae*, in: Wikipedia, 2008.
- The Midrasch Rabbah, Genesis I (Tübingen: Mohr Siebeck, 1999).
- Milgrom, J., Art.: מְלֵאכָה, ThWAT Bd. IV (Stuttgart: Kohlhammer, 1984).
- Pettinato, Giovanni,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then* (Heidelberg: Carl Winter, 1971).
- Richardson, Alan, *Die biblische Lehre von der Arbeit* (Frankfurt a. M.: ANKER, 1953).
- Rad, G. von, *Gottes Wirken i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4).
- Rad, G. von, *Das Erste Buch Mose*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1976).
- Rüterswürden, Udo, *Dominium Terrae* (Berlin: de Gruyter, 1993).
- Sarna, N. M.,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PS,

- 1989).
- Schmidt, Werner. H,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4).
- Steck, O. H., *Der Schöpfungsbericht der Priesterschrift*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1975).
- Vaux, R. De O. P.,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Heer und Kriegswesen, Die Religiösen Lebensordnungen* (Freiburg: Herder, 1960).
- Westermann, Claus, *Genesis BK I/1. Teil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검색어

노동

창조

안식일

말씀

다스림.

Re-Thought to the Creative Action of God

Hyung Youn

Lecturer a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Ruhr Universität in Bochum Dr. Theol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rrect the one-sided thought, that God' Creation has been accomplished only by his Words. But if one observes well the biblical text, he finds, that it is not so. The Creation has been made not only by God' Words, but also by his real action. Therefore the linguistic analysis to the text is to be so used that one may observe it in the sight of the movement of God. At first the concern is to be concentrated especially on the hebrew verbs, which describe well the creative action of God. They appear successively for six days. According to the seven-day-creation process this work is so divided into seven sections. The interpretation of the first sentence is concerned with one

hebrew verb בָּרָא. The verb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Genesis 1. It is very extraordinary, that it takes only God as its subject and needs no material for the creation. It also has the active meaning and appears again with relation to the living creatures in v. 21 and 27. The Wor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irst creation of Light. From the second creation the transitive verbs appear in Text. Above all 'בָּרַל'(badal/divide)'verb plays an important role in God's work. At third day the earth participates also in a creation according to the order of God. In comparison with other days the process of the fourth day is relative long. First of all lights are made here not by God's word but by his direct action(נָתַן natan/put). From the fifth day living creatures are created by God's work. At sixth day the creation is culminated in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Finally God stops his work and takes a rest at seventh day. All of this makes proof, that the creation is made not only by God' Words but also by his aimed work. Therefore this article offers the opportunity to people, the one-sided thought for the Creation to re-think.

Key word

Work

Creation

Sabbath

Word

Rule.

- 투고일: 2013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3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05일